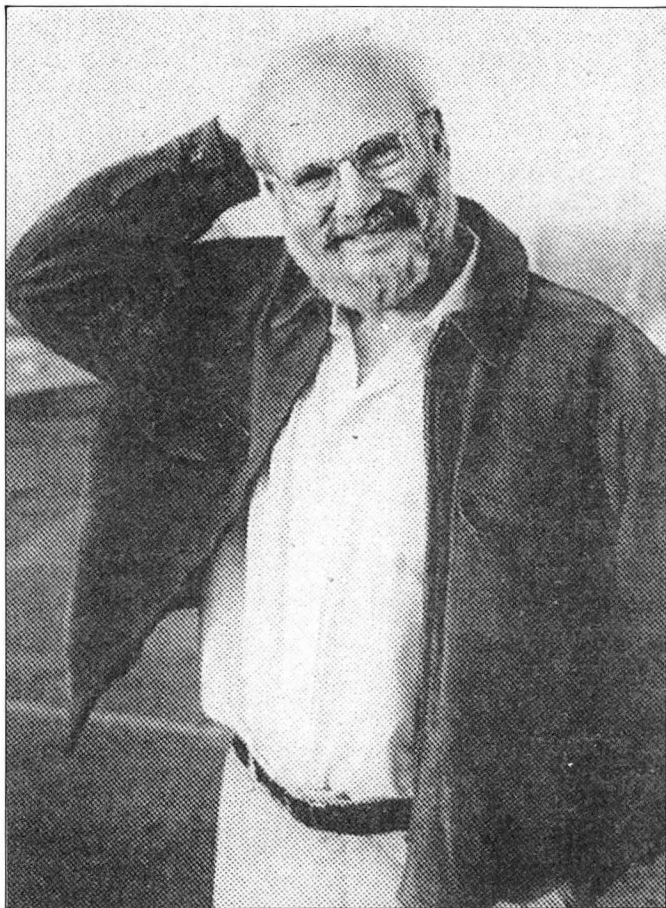


신경정신적 무질서의 폭발적 창조력

미국 정신과의의 심리분석사·외



「화성의 인류학자」를 저술한 올리버 섹스.

미국의 저명한 신경정신과 전문의 올리버 섹스(61)의 최근작 「화성의 인류학자」(알프레드 A. 크네포프)가 이른바 정신병에 대한 이해를 한 차원 높은 탁월한 저서로 격찬받고 있다. 자폐증세가 있는 동물학자, 경련증을 앓고 있는 외과의사 등 7명의 상담기록을 수록한 이 책은 “의사와 환자 양쪽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섹스가 발표한 책 중 가장 뛰어난 명저로 평가된다.

올리버 섹스는 국내에도 번역 출판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사나이」와 로빈 윌리엄스 주연 「어웨이크닝스(Awakings)」 원저자로 유명한 현직 의사겸 작가. 그는 주로 자신이 상담했던 환자들의 케이스를 통해 현대인의 불안한 심리상태, 인류보편의 감정 및 욕망 등을 재미있게 풀어내는데 재능을 발휘해 왔다. 그의 작품이나 글은 연극, 영화 등의 소재로 많이 이용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수십년 동안 수면상태에 빠졌다가 의식을 되찾은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어웨이크닝스」. 여기서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한 의사역은 사실 섹스를 모델로 한 것이다.

윌리엄스는 이 역할을 위해 섹스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의 몸짓, 말투, 버릇 등을 배우기도 했다.

사물의 이름을 혼동하는 음악가의 증세를 분석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사나이」는 마이클 니만 작곡으로 오페라화됐으며, 3월 13일엔 연극으로도 공연될 예정이다. 안구이식 수술 이후 난생 처음 사물을 보게 된 남자의 심리적 충격을 다룬 「몰리 스위니」도 연극화돼 인기를 끌었다.

신작 「화성의 인류학자」에는 7명의 특이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등장한다. 한 외과의사는 늘 손이나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는 병을 앓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수술실에만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경련이 멈춘다. 한 화가는 심각한 색맹증이 있는데도 멋진 작품들을 그려낸다. 여성 동물학자는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며 연구하는 동안 인간을 멀리하고 신체 접촉을 참을 수 없어하는 자폐증에 걸렸다.

섹스는 이들이 왜 이런 병에 걸렸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참을성있게 추적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독자들이 그의 책에 강한 매력을 느끼는 것은 환자 또는 인간에 대한

따뜻하고 진실한 이해심과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책에서도 섹스는 아무리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폭발적인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들 한사람 한사람 모두 ‘특별한 존재’란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창조력이란 뒤집어 생각하면 바로 신경정신적 무질서”란 것이다. 또 “사람들은 폐결핵같은 병으로 죽어가듯 창조력으로도 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섹스는 영국에서 내과의사의 아들로 태어나 27세때 미국으로 이주, 의사로 일하는 한편 저술활동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60년대에 호기심 삼아 마약에 빠졌던 경험이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힌 적이 있다. 현재는 뉴욕의 앨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그리니치 빌리지 지역에서 개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여성 우주비행사에 대한 책을 쓰는 것. “우주에서의 절대적인 고독감, 지구로 돌아왔을 때의 느낌을 꼭 알아보고 싶다”는 섹스의 호기심은 60을 넘긴 나이에도 시들 줄 모른다.

영국 추리작가의 소설적 삶

앤 페리(55). 지금 영미 문학과 영화·엔터테인먼트계에서 영국출신의 이 여성 추리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백만권 이상 팔린 몽크형사 시리즈때문만은 아니다. 페리 자신이 오래전 충격적인 살인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어 추리소설에 버금가는 호기심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페리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된 것은 지난해 개봉된 호주영화 「헤븐리 크리처스(Heavenly Creatures)」 때문이다. 이 영화는 1954년 뉴질랜드에서 두 십대소녀가 한쪽의 어머니를 벼룩으로 때려죽인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것으로, 소녀 중 한명이 바로 페리였다.

페리의 원래 이름은 줄리엣 마리온 흄. 정역을 마치고 교도소를 출감한 후 영국으로 이주, 이름을 바꿔 작가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옛날 사건의 주인공이라고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페리의 과거를 눈치챈 기자들이 끈질기게 사

실을 확인하려 들자 결국 그는 이를 시인하게 됐다.

당연히 독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영국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견작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몽크 형사의 활약을 그린 추리소설 시리즈는 새 작품이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다. 페리는 얼마전 모 출판사와 1백만달러의 출판계약



앤 페리.

을 맺어 작가로서 탄탄한 입지를 굳혔다.

현재 스코틀랜드의 한적한 시골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페리는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와 인터뷰에서 40년전의 사건을 회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사건은 1954년 뉴질랜드의 작은 도시에서 발생했다. 페리(당시 나이 15세)는 같은 학교 친구인 폴린 이본 파커(16)와 절친한 사이였다. 페리는 비교적 부유한 영국계 집안 출신인데 비해 파커는 가난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다소 비뚤어진 성격을 갖고 있었다. 파커는 페리가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요양여행을 떠나게 되자 같이 가려고 하지만 어머니의 꾸중만 듣는다. 파커는 어머니를 공원으로 유인한 다음 페리와 함께 벼룩로 무참하게 때려죽였다. 이 사건은 뉴질랜드는 물론 국제적으로 큰 충격을 던졌으며 재판후 파커는 정신병원, 페리는 교도소로 보내졌다.

페리는 인터뷰에서 “사건과정 자체는 거의 생각나지 않는다. 다만 매우 두려웠고 코너에 몰린 기분이었다. 그 일은 내 생애에서 가장 끔찍했던 경험”이라고 말했다. 또 영화가 파커와 자신의 관계를 동성연애적으로 묘사한데 불만을 나타내고 “당시 파커는 심리적으로 대

단히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계획에 가담하지 않다면 결국 그애는 자살했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또 "사건이 일어난 후 과거를 다시 만난 적이 없지만 부디 잘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페리는 소설보다 더 소설적인 과거로 인해 당분간 호기심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오애리〉

히틀러 자서전의 해금 무드

아우슈비츠 해방 50년, 드레스덴 폭격 50년, 95년은 히틀러 시대의 잔학성과 그 에펠 로그를 더듬는 역사적 행사로 꼭 차있다.

종전50년을 맞아 이런저런 역사적 행사가 줄을 잇는 가운데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Mein Kampf)의 독일내 출판문제가 낮은 소리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은 더이상 책방에 꽂혀 있는 한권의 책 이상이 아니기에 이제야말로 책방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투쟁」이 해방돼야 한다는 배경에는 히틀러 저작이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남용될 여지가 없을 만큼 독일사회가 성숙했고 올해가 종전 50년이라는 타이밍, 즉 이제 히틀러의 나치시대에서 벗어나 화해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와 맞물려 있다.

「나의 투쟁」 출간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뮌헨의 현대사연구소. 이 연구소 호르스트 뮐러 박사는 "히틀러 저작에 대한 학문적 소망은 분명하다"며 이 책의 해금을 주장한다.

「나의 투쟁」의 해금 이야기가 나온 것은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현대사연구소는 지난 93년초 이미 바이에른 주 정부에 「나의 투쟁」의 출판허가원을 냈다. 그때가 전후 최초의 독일내 「나의 투쟁」 출판 시도였다. 현대사연구소의 요청에 대한 당시 바이에른주 당국의 답변은 "히틀러 저작의 출판허가가 외국에서 물이 해에 부딪치고, 독일의 입장에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고도의 민감한 사안"이기에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나 히틀러의 국제저작권은 현재 바이에른주 정부가 갖고 있다. 히틀러 저작권의 원 소유자는 에르(Eher)라는 이름의 나치 중앙출판사였는데 제3제국 말기에 이를 바이에른주에 양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일에선 저작권

시효기간이 70년이니까 앞으로 2015년까지 바이에른주 소유이고, 현재같은 상황이라면 그때까진 「나의 투쟁」이 독자들 만나기는 어렵다는 계산이다. 히틀러의 나치독일이라는 그림자와 곱지 않은 외국의 시선이 여전히 독일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지어 해외주재 독일공관은 외국출판사들의 히틀러 책 출간을 저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뿐아니라 주재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도 시도했다. 그런 저지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땅을 벗어난 곳에선 「나의 투쟁」이 나오고 있다.

1993년 루마니아에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일리에스쿠 대통령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나의 투쟁」이 결코 파시스트의 선전물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현재 서점에 깔려 있다. 미국과 영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책이 읽히고 있다. 에어 출판사가 이미 20년대 휴튼 미플린(Houghton Mifflin)社에 미국내 출판권을 주어 1993년 이래 「My battle」이란 제목으로 나오고 있다. 폴란드에서도 1992년 논쟁 끝에 출판이 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저작권료를 저자의 사후 25년으로 치고 있기 때문이다.

히틀러의 「나의 투쟁」은 1943년에 1천만부 정도가 유통됐다. 당시 모든 신혼부부가 결혼식에서 결혼 기념품으로 한권씩 받을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게 사실이다. 그 술한 「나의 투쟁」 가운데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 책이 독일 밖에서 빛장을 풀어가는 이 시점에서 독일정부가 선뜻 출판을 허가하지 못하는 데는 나름대로 곡절이 있다. 독일통일 이후 고개를 드는 네오나치를 의식해서이다. 지난해 불잡힌 극우 나치파의 자유노동당 사무실에서는 15권의 「나의 투쟁」이 발견되었다. 「나의 투쟁」 출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악재가 됐음은 물론이다. 앞으로도 당분간 서랍속에서 잠자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나의 투쟁」 출판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하지 않느냐는 반문도 거세다. 히틀러의 막이 내린지 반세기가 됐지만 히틀러의 「나의 투쟁」은 히틀러라는 이름만큼 여전히 터부시되고 있다.

〈신창섭(MBC '본' 특파원)〉

출·판·서·비·스



Book Gallery

책과 연애하는 사람들!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 사랑으로 책을 만드는 젊은 회사
북갤러리!

야무진 출판장이

북갤러리는

젊음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색깔 있는 책, 느낌 있는 책, 살아 있는 책을 만듭니다.

북갤러리는 항상 도전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곧 새로운 책과 연애할 수 있는 신나는 만남이니깐요.

■ 북갤러리가 하는 일 : 단행본 · 자비출판물 · 사보 등의 기획 · 전자조판 · 편집 · 운문 · 교열 · 교정 · 디자인 · 제작

■ 북갤러리는 출판에 관한 모든 일을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120-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35-1 마포현대빌딩 515호

전화 3272-2119 / 팩스 3272-2120